

있어도, 높이는 60피에●를 훨씬 넘었다네. 사실 이 나무의 목질은 한 다발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을 뿐이지만, 그걸 둘러싼 변재가 너무 단단해서 날이 제일로 잘 드는 도끼라도 튕겨내 버린단 말이야. 하물며 풀은 칼 한 자루 가지고 있지 않았다네. 풀은 저 캐비자야자나무 밑동에 불을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. 한테 그게 또다시 곤혹이었어. 풀에겐 부시가 있지도 않았거니와, 더욱이 이 섬은 온통 바위로 뒤덮여 있어서 내가 보기엔 부싯돌로 쓸 만한 돌 한 조각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 말이야. 필요는 근면을 낳는다지. 그러니까 최고로 실용적인 발명은 대개가 가장 배고픈 사람한테서 생겨나는 법일세. 풀은 흑인들이 하는 식으로 불을 붙여보기로 했네. 그 아이는 돌의 한쪽 귀퉁이를 가지고 잘 마른 나뭇가지에 작은 구멍 하나를 내고, 그 나뭇가지를 발로 고정시켰어. 그리고 나서 그 돌의 날이 선 끝부분을 가지고, 똑같이 건조하지만 다른 종류의 나뭇가지 조각을 잡아서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지. 그런 다음 이 뾰족해진 나뭇조각을 발로 밟고 있던 나뭇가지의 작은 구멍에 맞춰 놓고, 마치 초콜릿에 거품을 내려고 막대 거품기를 회전시킬 때처럼 양손으로 빠르게 돌리면서 비

---

● [원주] 흑인 도맹그와 그의 강아지 피델이 보여주는 이런 영리한 행동은 크레브피에르 씨가 『어느 미국 농민의 편지』라는 제목의 인간미 넘치는 작품에서 이야기한 원주민 테웨니사와 그의 강아지 오니아의 행동과 많이 닮았다. [옮긴이 주: 『어느 미국 농민의 편지』는 크레브피에르(Saint-John de Cr  vec  ur, 1735-1813)가 1782년 영어로 먼저 출간했다가 개정, 증보하여 1784년 프랑스어로 재출간한 작품으로, 당시 미국을 이상적인 낙원으로 묘사하며 자연과 전원생활을 찬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]